



여수시가 다양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일선 학교 학생들의 예술 역량을 키워주는 등 '감성교육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수 소호초교 오케스트라의 공연 모습. <여수시교육지원청 제공>

# 음악으로 따뜻해진 학교 여수 감성교육 꽃피웠다



여수가 감성교육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실마다 노래가 가득하고, 예술을 통한 감성교육으로 아이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있다. 학생들의 탄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여수시가 선보이고 있는 감성교육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누구나 예술가=여수시의 감성교육은 다양한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 24일 여수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012년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학교 및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 지원센터'로 선정된 이후 감성교육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합예술 선도교육 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 향상, 인성 함양 등 감성교육 확대와 교육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여수교육청은 당시 전국 12개 지원청 중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시상금 5000만원과 지속적인 감성교육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2012년 8곳(초등 7·중등 1)의 오케스트라단 운영학교를 선정, 본격적인 감성교육의 출발을 알렸던 여수교육청은 꾸준한 예산지원과 활성화와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14년 현재 16개팀 848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감성교육 도시를 이뤄냈다. 또 학생연합 오케스트라단과 교원연합 오케스트라단, 지역연합 오케스트라단, 여수 영재 오케스트라단을 본격 지원·육성하고 있다. 여수교육청은 수준높은 오케스트라단 육성을 위해 여수시 교향악단과 관련 대학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우수강사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또 교사 공동운영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정착시켜 음악교육의 질 또한 높였다.

당시 오케스트라단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지원될 36억5000만원의 예산을 미리 확보했



## 다양한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 시교육청을 16팀에 8억 지원 배려심 커지고 즐거운 교실로 합창단·연극부도 운영 큰 호응

던 여수교육청은 여수시와 함께 올해만 이들 오케스트라단에 총 8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심경섭 교육장은 "음악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성장한 미국 할렘가 아이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높은 음악교육을 주축으로 한 감성교육이 여수 초·중학교 교육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감성교육 연계와 지속화를 위해 오케스트라단 운영학교를 중심으로 여수학생·학부모 합창단과 학생 연극부도 운영되고 있다.

여수 소호초등학교 학생·학부모 합창단을 비롯한 15개 합창단에 올해만 6000여명이 지원됐다. 또 학교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계 등 지역사회와의 연결프로그램을 마련, 확대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감성교육 효과 '특특' = 감성교육 집중 지원에 따른 가시적 효과도 꾸준하다.

여수교육청은 지난해 2월 GS예술마루 대극장에서 관내 초·중학교 12개 팀과 교원교향악단 1팀이 참가한 가운데 '여수 종합예술제'를 처음 개최했다. '다도해에 펼쳐진 예술의 향연, 저마다의 꿈을 현실로'란 주제로 펼쳐진 공연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연극, 합창, 오케스트라, 미술이 함께 어우러진 예술제는 감성교육 성과의 첫 시작을 알린 축제였다.

올해는 오케스트라 페스티벌과 연극페스티벌, 학생·학부모 합창단 페스티벌이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한다는 '2014 여수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은 25~26일 이틀간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예선·본선을 치른다.

초·중학교 총 16개팀이 그동안 갈고 닦은 연주실력을 뽐낼 대회는 최고 오케스트라단 선정을 위한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

지난 10월 예술마루 소극장에서 열린 '2014 학생 연극 페스티벌'도 여천초의 '양파의 왕따일기' 공연 등 아이들의 실제 고민이 다양한 주제로 표현, 학부모와 교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 지난 13일 열린 '제 3회 학생·학부모 합창단 페스티벌'은 15개팀이 참여, 1000여 명의 관객과 뜨거운 감동을 함께했다.

여수 소호초등학교 이정주 교장은 "아이들의 감성이 풍부해지면서 친구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커지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여수시, 국내 첫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

## 여수포마와 협약 체결...주차타워 건립 보증 '현금담보제공계약' 조건

여수시가 국내최초 해상케이블카 임시 사용을 승인했다.

여수시는 24일 "주철현 여수시장과 여수포마 추동현 대표, 광주은행 여수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기부행약정서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사업자인 여수포마측이 그동안 250면 규모 주차장 확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논란이 됐던 자산공원 주차타워 건립을 보증하는 '현금담보제공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임시 사용을 승인했다.

시는 여수포마가 최근 주차장 공사비 40억원을 광주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함에 따라 시의회에 상정된 공익자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곧바로 주차장 공사 착공 허가를 낼 방침이다.

전동호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은 "해상 케이블카 시설물들에 대해 임시사용을 우선 허가한 이후 전남도로부터 '준공 전 사용승인'을 얻어야만 임시운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 국장은 또 "향후 여수포마가 주차장을 건립, 여수시에 기부하면 시가 다시 사업자에게 유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연 3억5000만원의 세외 수입

을 올릴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여수포마 측이 티켓 판매금액 3% 인 연 3억원을 시에 환원한다는 '공익기부행약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지역환원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시 개통후 교통대책과 관련한 입장에서 표명했다.

여수시는 우선 "병목현상 등 교통난이 심각한 돌산공원 내 순환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돌산공원 진출입도로는 좌회전을 금지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지 부진했던 국도 17호선 돌산고원 연결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최근 토지사용 승인을 얻어낸 만큼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형관광버스 진입도 당분간 통제된다.

한편 여수 자산공원과 돌산공원 1.5km를 잇는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7월 개통을 위한 시설을 모두 완공했지만 250면의 주차장 확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시로부터 운행 허가를 받지 못해 왔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포마 측이 주차장 공사비를 현금으로 예치함에 따라 시물레이션 실시와 허가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붉은 입술이 열렸다...오동도 동백꽃 개화



전국 최대 동백나무 군락지인 한려해상국립공원 여수 오동도에 동백꽃이 피면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한려해상 국립공원 오동도를 비롯한 동백이 자라는 여수권 남도지역에 동백꽃이 최근 개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동백나무 군락지로 알려진 오동도는 0.12km의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동백나무 3600여 그루가 서식하고 있는 대표 군락지다. 이른 봄철 피기 시작하는 동백꽃은 여수 지역에서는 온화한 기후 등으로 인해 늦가을인 10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이듬해 4월 말까지 천연 붉은색으로 섬 전체를 뒤덮는다.

동백꽃 효과로 오동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꾸준하다.

여수시는 "최근 통계 결과 올해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206만여 명의 관광객이 오동도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실제 오동도 동백과 함께 관광객을 사로잡는 오동도 동백 열차와 음악분수, 여수 밤바다와 일출 덕분에 연중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경품행사**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기념

행사기간 :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자격대상자(경품 응모권 및 기념품 증정(축적보관기념품 포함))

**선물1**  
(개별시 명품 용모권 증정)  
1등: 황금열쇠수금1방(1명)  
2등: 가전제품 100만원 상당권(2명)  
3등: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동반 1인 포함)3명  
4등: 온누리상품권 5만원(4명)  
5등: 온누리상품권 3만원(100명)

**선물2**  
(기념품(택1))  
[핸드크림] [차약세트]

**선물3**  
(개별시 축적보관 증정(100%당첨))  
[풍장지갑] [클릭식별 일패용기세트] [세라믹코팅 냄비]

**경품추첨일**  
2015년 정기총회(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광고)

**자격기준**  
-자산건 3년 이상 신규자  
-정기예금 1500만원 이상 가입고객  
-대출 1,000만원 이상 상환고객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전자금융 신규자  
-상품은 예외사항 다룰 수 있습니다.  
-자랑이세 3년 이상 신규자  
-체크카드 신규채취(이상 이용고객)  
-대출 1,000만원 이상 상환고객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전자금융 신규자  
\*상기 자격기준은 회원에 한함

대인본점 : 062)223-8007, 232-7251 대인동 한미소프 1층  
충장지점 : 062)223-7217, 223-7218 충장로 5가 입구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민요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분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임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데기!!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작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춤형 브랜드 손님을 꼭잡힌 반응 얻고있습니다.